

2024 충북갤러리 하반기 기획자 공모 전시

# 장소

# 상실

기획

이선희

참여작가

고정원

김기성

김라연

금벌레

문창환

윤다혜

이선구

이재복

홍덕은

낭독극 협업

차성욱

주최



주관

CBART

후원



참고로 장소는 의미를 부여하는 장소  
인식도 중요하지만, 공간은 그 공간  
이전의 영역을 말하지만 때론 이를 사멸  
개념은 존재한다.

2024.10.17 Thur  
— 11.04 Mon

## 충북갤러리

인사아트센터 2층  
서울시 종로구 인사동길 41-1

<https://www.cbartgallery.com>

070-4224-6240~1



장소 상실

Loss of Locus

*01*

---

# Curator

기획자

## 이선희(비칠칠문화예술협동조합)

입체미술을 전공하고, 평범한 사물과 수공예적 기법을 이용하여 설치 작업을 병행하며, 다양한 기획과 문화예술교육활동을 진행한다. 사소한 사건 속에서 얻게되는 이미지, 글, 흔적들을 이용하여 개인의 서사와 삶을 마주하는 태도를 시각적으로 표현하는 시도를 하며, 취미활동 또한 예술적 원천이 될 수 있다는 믿음 아래, 배움과 연습, 연구 활동을 즐기고 있다.

2010년 안국제약 - 갤러리 AG 에서의 첫 개인전 <위로의 방>을 시작으로, 서울, 안산, 청주 등에서 8번의 개인전과 50여회의 단체전에 참여하였고, <따뜻한 수작>, <직조시간> 등 뜨개를 매개로 한 참여적형태의 공공미술 프로젝트를 다수 진행해왔다.

또한 2021년도 부터 2023년까지 B77에서 창작거점공간지원 사업 기획자로 활동하면서 청주 운천동을 거점으로 지역사회의 관계를 꺾으며 미술을 통한 사고의 확장과 예술가의 사회적 역할을 고민하고 있다.

[sunheelee.com@gmail.com](mailto:sunheelee.com@gmail.com)

---

## 기획 글

도시의 성장, 부흥, 쇠퇴 과정은 흡사 사람이 태어나 자라고, 전성기를 누리다 나이 들을 경험하는 것처럼 생명력을 지니고 있다. 이러한 도시는 그곳에서 거주하며 살아온 사람들의 치열한 삶과 문화가 축적된 초상의 단면이며, 더 나은 공간이 되기 위한 성장의 시간을 품고 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현대화가 거듭될수록 도시는 삶의 다양성을 잃고, 추상공간으로 변모하고 있다. 어떠한 장소가 기억에서만 존재하게 될 때, 우리는 끊임없는 상실을 경험하게 된다. 동질화 된 공간을 반복적으로 주조해내는 도시는 장소가 가진 차이를 빠르게 말살시키며, 공간이 우리의 삶과 얽히며 친밀한 장소로 변화되는 경험을 단절시킨다. 또한 자본의 회로로 기능하는 도시는 거주에 대한 우리의 인식 역시 지대(地代)의 상승과 맞물리도록 변모시켰다. 이제 집은 더이상 우리가 실존적으로 뿌리내리는 장소가 아니라 투자를 위한 대상으로 바뀌었다. 이는 우리에게 지속적인 뿌리뽑힘(uprooted)의 상태를 경험하게 한다.

이번 전시는 거주 경험을 바탕으로 우리의 일상 속 뿌리뽑힘 상태가 주는 상실감과 애도의 감정을 예술가들의 다양한 태도와 실천을 통해 선보인다. 1. 재개발과 도시재생 등의 이유로 사라진 -질 공간을 다큐멘터리적 시선으로 기록(이재복, 김기성)하고, 2. 개인적 장소경험을 박제, 기억하기 위해 재현(김라연, 윤다혜)하며, 3. 발화를 통해 심상의 지도를 이미지화(금벌레)하는 과정으로 연결된다. 또한 4. 추상공간 속에서 주체성 회복을 위한 재현적 실천(고정원, 이선구)과 5. 더 나아가 짓고, 거주하며 주변환경과 관계를 맺고 살아가기 위한 과제(문창환, 홍덕은)로 구성된다.

본 전시를 통해 관람자 개인의 심상 속에 머무르던 장소에 관한 기억을 끄집어내고, 도시와 함께 호흡하며 끊임없이 현재화되는 장소 실천으로 이어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이는 우리가 지금 어디에 발을 디디며 살고, 무엇을 향해 걸어가고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뿌리내림 할 것인지 다가올 도시를 위한 안내자가 될 것이다.

# 02

---

## Artists.

참여작가

김기성

이재복

윤다혜

김라연

금벌레

고정원

이선구

문창환

홍덕은

차성욱(낭독극 협업)

# 김기성

Kiseong Kim



---

독일 쾰른에서 미디어아트를 전공한 후 고향 청주로 돌아와 지역의 사라져가는 공간과 장소, 사람들의 이야기에 관심을 두고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조각과 미디어설치, 영상작업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오다 현재는 다큐멘터리 영화 제작에 전념하고 있다.

lieulfilms@gmail.com

## 1. 과수원에 대한 개인적 서사

부모님은 청주에서 30년 넘게 배 농사를 지으셨다. 배 밭의 나무들은 지금의 우리 가족과 나를 있게 해준 고맙고 소중한 존재였다. 3년 전 부모님이 배 농사를 그만하시겠다고 결정하셨을 때, 농사일의 고됨을 알기에 부모님의 뜻을 존중하면서도 한 편으로는 배나무들이 베어질 것을 생각하니 아쉽고 착잡한 마음이 들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배 밭의 나무들은 이미 다 베어지고 땔감으로 쓰기 좋게 가지런히 잘려져 있었다. 불과 며칠 사이, 그 많은 나무들을 아버지 혼자 베어내셨다. 아마도 배 밭의 나무들을 보고 있으면 또다시 농사에 대한 미련이 가지지 않으셨으리라... 그렇게 정든 배나무들을 스스로 베어내셔야 했던 아버지의 심경을 어림짐작하며 빈 들판을 한동안 멍하니 바라보았다. 수많은 감정과 장면들이 다큐멘터리 영화처럼 머릿속에서 교차되며 상영되고 있었다. 그와 동시에 과수원을 소재로 한 다큐멘터리 영화를 제작하기로 마음먹었다.

## 2. 도시개발과 기후 위기 앞에 놓여있는 과수원의 풍경들

틈틈이 배 과수농가들을 물색하던 와중에 배과수원으로 유명한 경기도 평택시 죽백동에 가보게 되었다. 배꽃이 저물던 4월 말이었다. 아담하고 평화로운 마을의 정취가 인상적이었고, 배 밭 너머 인근 신도시 아파트 건물 풍경들이 병풍처럼 마을을 에워싸고 있었다. 한편 몇년 전 과수화상병으로 인해 매몰된 배 밭의 흔적들은 이미 당도한 기후 위기 시대의 한 단면을 보여주고 있었다.

이번 전시에 상영될 영상은 영화적 내러티브를 갖춘 다큐멘터리라기보다는 ‘개밭과 기후위기 앞에 놓여있는 과수원의 풍경들’을 가급적 비현실적인 이미지로 구성하는 것에 초점을 둔 작업이다.



## 동구 밖(Outside the Orchard)

7분30초\_싱글채널비디오\_2024



## 동구 밖(Outside the Orchard)

7분30초\_싱글채널비디오\_2024



## 동구 밖(Outside the Orchard)

7분30초\_싱글채널비디오\_2024



## 동구 밖(Outside the Orchard)

7분30초\_싱글채널비디오\_2024



## 동구 밖(Outside the Orchard)

7분30초\_싱글채널비디오\_20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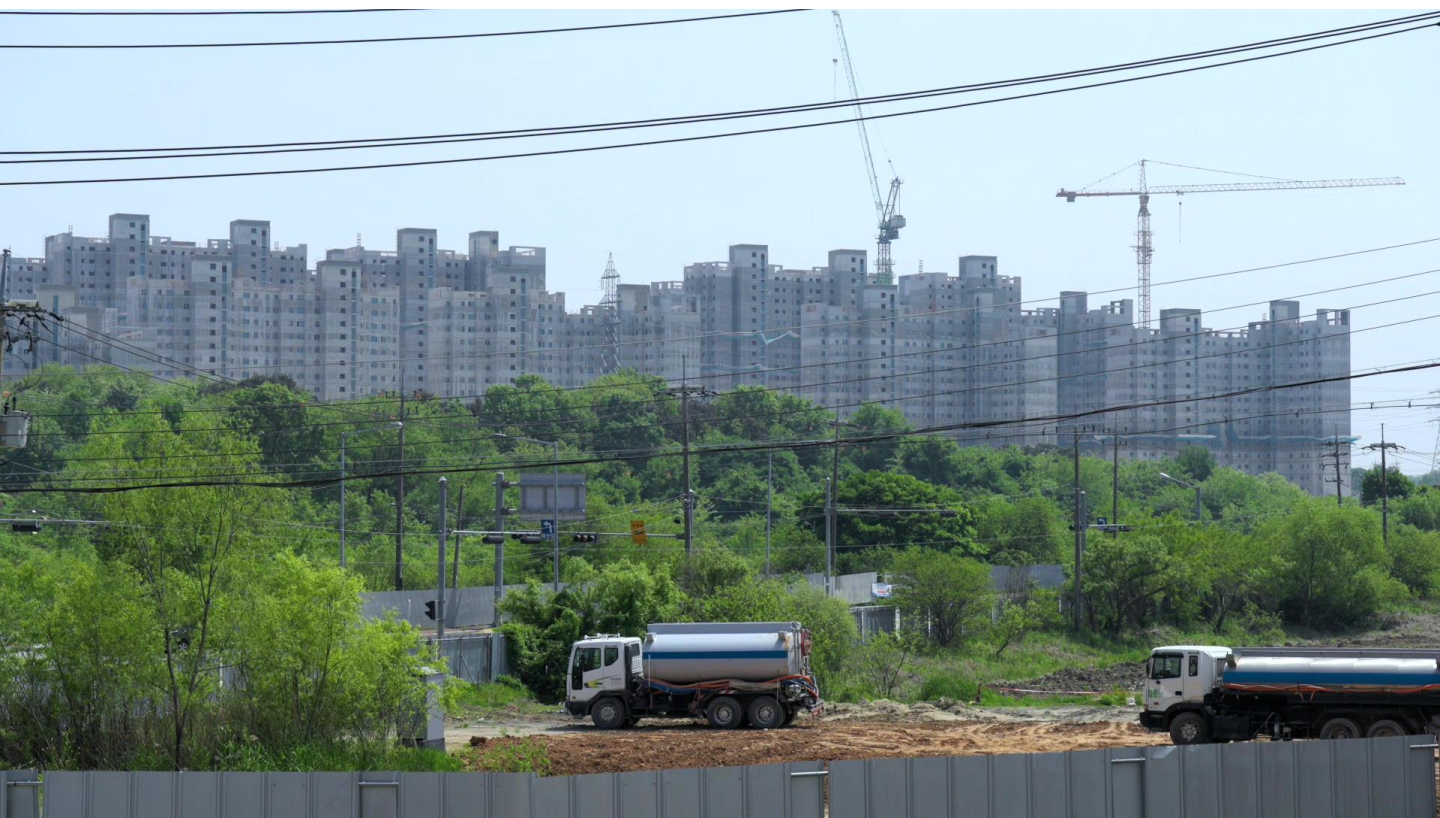
## 동구 밖(Outside the Orchard)

7분30초\_싱글채널비디오\_2024



## 동구 밖(Outside the Orchard)

7분30초\_싱글채널비디오\_2024



## 동구 밖(Outside the Orchard)

7분30초\_싱글채널비디오\_2024



## 동구 밖(Outside the Orchard)

7분30초\_싱글채널비디오\_20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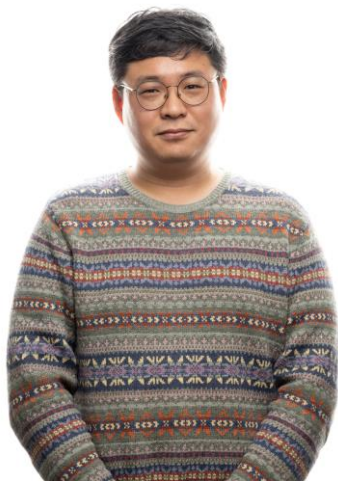


## 동구 밖(Outside the Orchard)

7분30초\_싱글채널비디오\_2024

# 이재복

Lee Jae Bok



---

홍익대학교 산업미술대학원에서 사진을 전공하고, 현재 청주지역 문화를 중심으로 사진, 책, 영상을 통해 자신과 주변의 이야기를 기록하며 창작하는 사진가이자 문화기획자이다. 최근 동네 기록관 프로젝트 등 청주의 문화 재생과 사라지는 풍경들에 관심을 두고 사진과 영상으로 기록하고 있으며, 2015년부터 2020년까지 5년간 청주연초제조창 동부창고의 모습을 기록한 사진집 “동부창고-인수인계”를 2021년 출판했다.

[jaeboklee.com](http://jaeboklee.com)

[jaebok@daum.net](mailto:jaebok@daum.net)

최근 청주는 재생과 재건축이라는 이름으로 그 어느 때보다도 변화가 많았던 시기로 고도화되는 도시의 다양한 장면을 지켜보고 있다. 도시 발전의 과정이라 할 수 있지만, 누군가의 기억이 하루아침에 사라지는 슬픈 이야기이기도 하다. 이런 변화의 흔적들은 주민의 기억에만 존재하다 때가 되면 흐릿하게 사라지곤 하는데, 지역의 변화를 최대한 아름답게 아카이빙하기 위해 사진기를 들고 있다. 객관적으로 어쩌면 소극적으로 사회의 개입 없이 지극히 개인적으로 바라봤던 심야의 풍경을 흑백의 톤과 짙은 대비로 사진이 만들어졌다.

이번 전시에는 “한국공예관”, “흥덕초등학교”, “고인쇄박물관” 3개의 장소를 소개한다. 한 장의 사진이 촬영 당시는 어떻게 활용될지 알 수 없다. 이미 몇 개의 건물은 철거되었고, 어떤 건물은 이미 재생되었다. 사람이 죽으면 이름과 사진을 남기듯, 도시의 변화도 어떻게든 기억되었으면 좋겠다. 사라지는 수많은 건물 중 공공재를 기록으로 마을의 역사를 전시로 보여주하고자 한다.



## Take Over

119x84cm\_Archival Pigment Print



Take Over

119x84cm\_Archival Pigment Print



## Take Over

119x84cm\_Archival Pigment Print



Take Over

119x84cm\_Archival Pigment Print



Take Over

119x84cm\_Archival Pigment Print



이제껏 작가는 최근 일주에서 재정과 재건축이라는 이름 아래 변화하는 도시의 모습을 지켜보고 있다. 이는 도시 발전의 과정일 뿐만 아니라, 누군가의 기억이 뒤떨어짐에 사라지는 물론 이야기이기도 하다. 변화의 흔적들은 우리의 기억 속에서 흔적이며, 시간이 흐르면 잊혀지기 마련이지만 작가는 이러한 순간을 최대한 아름답게 담아내기 위해 사진기를 들고, 심미적 통찰을 통해 본과 같은 대의를 담아낸다.

인양 전에서는 "한국공예관", "충무공로동관", "고인재박물관"의 세 장소를 소개하며, 각 건물의 변화를 기록해 작품의 역사를 보여주고자 한다. 이를 통해 사라지는 수많은 건물 속에서 공공재를 기억하는 것이, 도시의 변화 또한 잊혀지지 않도록 하는 작은 방법이 될기를 바란다.

## Take Over

119x84cm\_Archival Pigment Print

# 윤다혜

Dahye Yoon

---

윤다혜는 장소를 경험적이고 사적인 곳으로 바라보는 토포필리아(topophilia)의 관점으로 감정과 기억을 가진 장소에 주목하고 장소를 기(器)의 형태로 기록한다. 도자의 질료적 특성과 소성 과정에서의 메커니즘을 바탕으로 언젠가 사라질지도 모르는, 혹은 이미 사라진 장소의 흔적을 뒤쫓아가며 그곳의 장소 경험과 반추한 감각을 작품에 표현한다.

yoooondahye95@gmail.com

@dahye\_\_\_y

<마로면 사발>은 가족들의 추억이 담겨있는 산을 기록한 작업이다. 유년 시절, 봄마다 가족들과 함께 마로면에 있는 산으로 봄나물을 뜯으러 다녔다. 그러나 산 앞쪽에 고속도로 공사가 시작되면서 산으로 들어가는 길이 막혔고, 더 이상 그곳을 찾을 수 없게 되었다. 마로면은 내가 처음으로 장소 상실을 경험한 장소이다. 장소의 용도는 시간이 지나며 변하고, 그 위에 남은 기억들 또한 덮여 쓰이게 된다. 나는 그 잊혀진 기억을 다시 꺼내 보고자 이 작업을 시작하였다. 먼저 산을 다시 찾아가 그곳의 흙을 가져와 점토에 섞어 사발을 만들었다. 그리고 산이 개발되기 전의 모습을 국토지리정보원에서 제공하는 수치 자료를 이용해 3D로 재현하고, 그 형상을 선(폴리곤 메쉬)으로 전환해 사발 표면에 새겨 넣었다.

수치 자료를 입체화하고 그 위에 질감을 입히는 과정은 3D 그래픽 제작 기법과 유사하다. 이 방식을 사용한 이유는 어린 시절의 희미한 기억을 보완하기 위해 구체적인 데이터가 필요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자료로 마주한 산의 모습은 내가 기억하는 것과는 어딘가 달라 낯설게 느껴졌다. 그래서 수치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되, 장소를 있는 그대로 재현하는 것이 아니라 나만의 방식으로 재해석해 산을 발의 형태로 표현하였다.

제작된 사발은 개발 시작 전의 산을 모습을 담은 항공 사진과 함께 전시하였다. 이러한 일련의 작업과정은 마로면에 대한 기억을 되살리는 과정임과 동시에, 지금은 사라진 장소를 재현한 기록물로의 의미를 가진다.



## 마로면사발

24.5x24.5x14cm, 70x40cm\_백자토에 마르면 흙 혼합, 유약\_2022(2024)



## 마로면사발

24.5x24.5x14cm, 70x40cm\_백자토에 마르면 흙 혼합, 유약\_2022(2024)





## 마로면사발

24.5x24.5x14cm, 70x40cm\_백자토에 마르면 흙 혼합, 유약\_2022(2024)



## 마로면사발

24.5x24.5x14cm, 70x40cm\_백자토에 마르면 흙 혼합, 유약\_2022(2024)



# 김라연

Ra-yeon Kim

---

김라연은 산책을 하며 만나는 길과 사물, 그리고 자신의 생각들을 파편화하고 모으며 화면을 구성하는 회화 작업을 하고 있다. 작가가 겪는 일상에 관해 주로 표현하기 때문에 현재 느끼고 있는 감정, 인간 철학에 대한 고민을 나름대로의 명상과 일기에 녹아 들어간 내용을 쓰고 있다. 길을 걷는 자신의 시선과 산책에 대한 관념을 모티프로 해왔던 작업의 소재를 재구성하여 당시의 생각과 상황을 표현하고자 한다.

fkaus5223@naver.com

@r.y.kim

김라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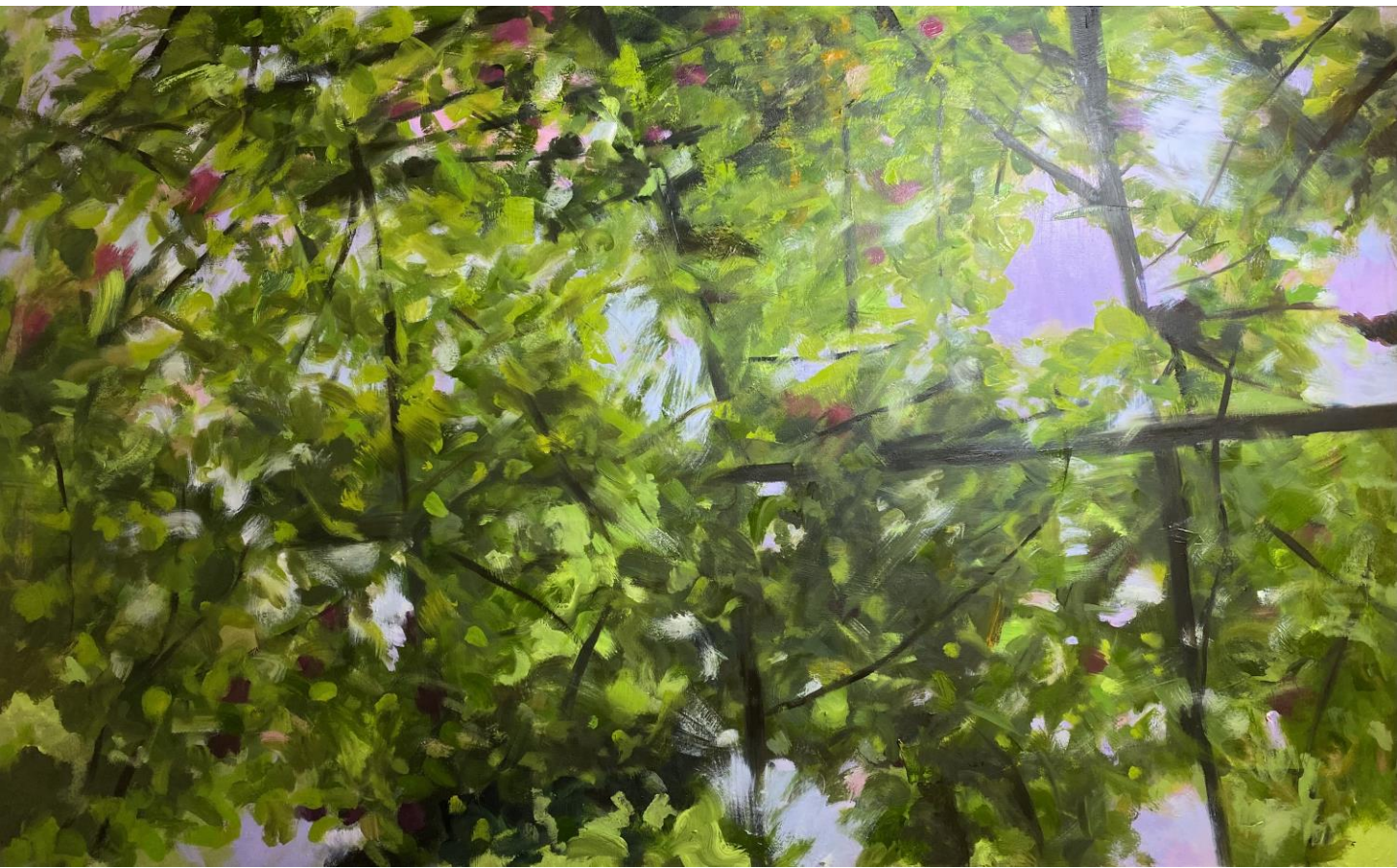
Ra-yeon Kim

오늘도 나는 살고 있는 동네의 9번길 부터 107번길 까지 매일 걷는다. 매일 걷는 길도 다르게 느껴진다. 뛰고 걸으면서 그저 평범하고 조용하며 지나치기 쉬운 순간들을 관찰한다. 그리고 찰나의 시선에 잠시 머물렀다가 집에 돌아오곤 한다. 언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상황 속에서 우리 주변의 허공들은 왠지 서글프게 아름다워 보인다. 허공의 시선에 매혹된다는 것은 어떤 것일까? 도무지 예측할 수 없는 순간들이기에 어떠한 끌림을 느낀다. 가만히 있거나 내 눈 앞에 보여도 지나치기 쉽다. 그리고 나만의 프레임 안에서 그 끌림을 붙잡아 두고 있다. 특정한 장소들과 풍경은 잔상을 남긴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 머릿속에 용해가 되고 여러 곳의 길을 걸으면서 파편화된 허공의 이미지를 만들어내는 일이 매일 기도하듯 하나의 의식처럼 되어버렸다. 평범하여 더욱 찬란한 이 길은 나에게 어떠한 살아있는 생명감 혹은 생경함을 주기 때문에 계속 작업을 이어나갈 수 있게 하는 원동력이 된다. (작가노트 중에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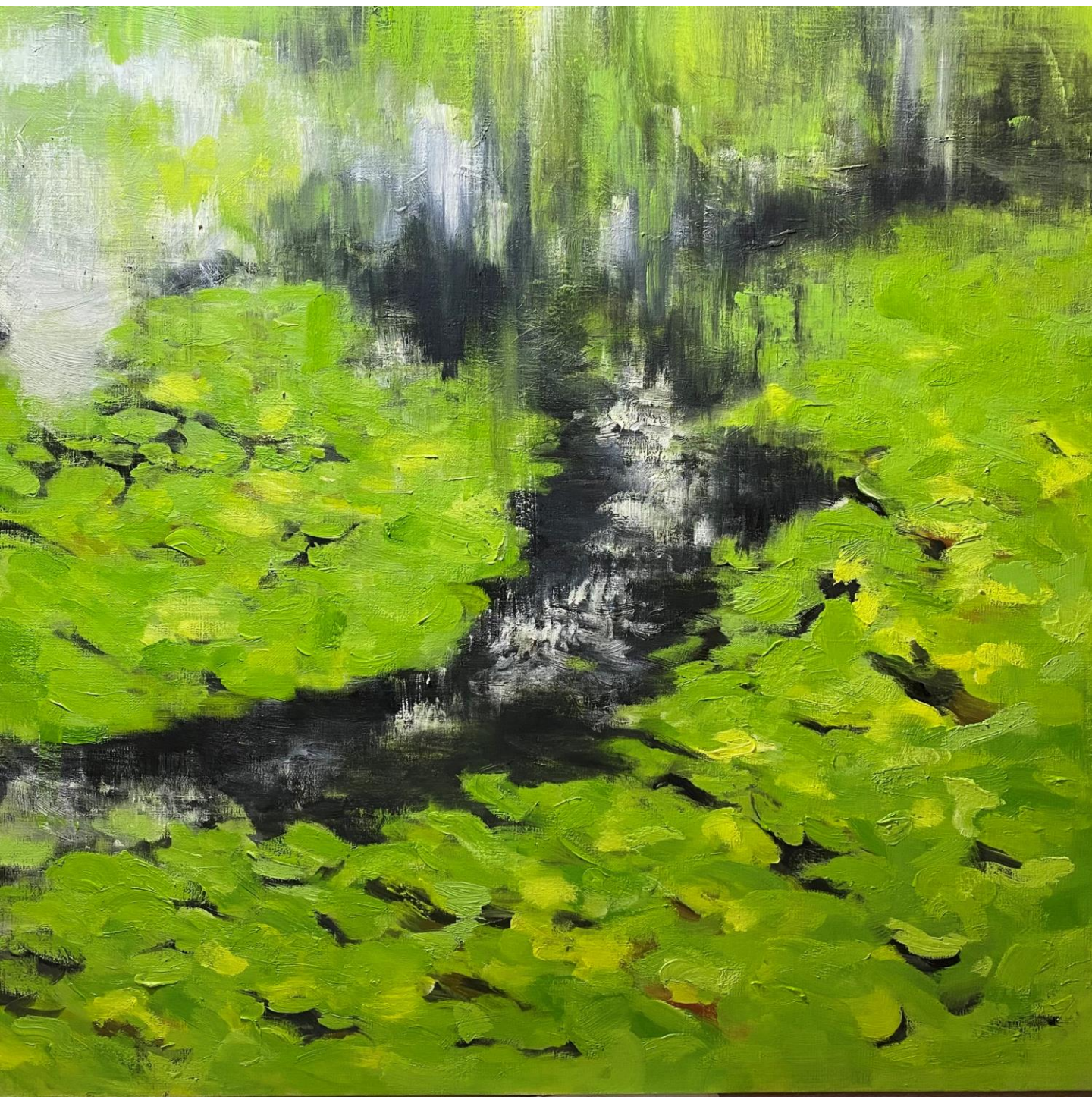
21번 길(21th Street)

95x240cm\_oil on linen\_2024



**18번 길(18th Street)**

145.5x97cm\_oil on linen\_2024



알수 없음(nuknown road)

72x72cm\_oil on linen\_2024



## 21번 길(21th Street)

95x240cm\_oil on linen\_2024

## 18번 길(18th Street)

145.5x97cm\_oil on linen\_2024

# 금벌레

*Geum Beollae*



---

금벌레는 집과 몸의 관계에 주목하여 거주의 현상학적 개념을 바탕으로 작업을 해왔다. 그 연장선에서 기억과 기념의 물질문화(material culture)가 갖는 의미에 대해 연구하고 있다. 그의 초기 작업은 조부의 전거와 새로운 거주지에의 적응, 별세에 이르는 일련의 사건들을 통해 우리가 이 세계에서 거주하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물질성과 실존의 얽힘에 대해 다루고 있다. 2020년 리스본 시립미술관과 2021년 갤러리 B77에서의 전시 이후로 민속신앙인 가신신앙에 주목하여 집지킴이의 신체를 구성하는 것을 탐구하고 있으며 인간, 비인간 존재의 개입을 통한 작품제작을 시도하고 있다.

dutumdutum@gmail.com  
@geumbeollae

금벌레

Geum Beollae

금벌레 \_ 돛자리펼치기(Unfolding Mat) \_ 2024 \_ 2차례의 낭독 워크숍을 통해  
제작된 글과 돛자리 \_ 가변크기

전시 기간 동안 두 차례에 걸쳐 진행되는 워크숍 '돛자리 펼치기'를 통해 구성됩니다. 돛자리 펼치기는 우리가 돛자리를 펼치는 순간, 그 공간이 잠시 동안 우리의 것으로 변화한다는 발상에서 출발했습니다. 워크숍을 통해 이 낯선 전시장을 친근한 공간으로 탈바꿈시키고 자신의 기억을 찾아가는 여정을 함께 하고자 합니다. 이 워크숍은 시각예술가 금벌레와 낭독극을 통해 아이들을 교육하는 교사이자 아마추어 연극 활동가 차성욱의 협업으로 진행됩니다. 워크숍에 참여하신 분들이 제작한 돛자리는 전시 종료 이후 각자의 장소에 포개어질 수 있도록 우편으로 보내드릴 예정입니다.

협업자:

차성욱은 초등학교에서 17년째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사다. 좋아하는 일과 해야 하는 일 사이의 경계를 허물기 위해 대학 시절에 만난 연극과 산에 관한 이야기를 이어가고 있다. 교실에서 아이들과 함께 만든 낭독극을 바탕으로 『온작품을 만났다, 낭독극이 피었다』라는 책을 공동 집필했으며, 현재 교사 극단 빈도에서 활동 중이다. 또한 주목받지 못하는 백두대간 이야기를 알리고자 『우리가 몰랐던 백두대간』을 발간하는데 참여했다. 이 워크숍을 통해 연극이라는 활동무대가 갖는 일시성과 지속성, 백두대간처럼 굳건히 서 있어도 장소성이 발현되지 않는 장소들에 대해 이야기 나누고자 한다.



## 돗자리펼치기(Unfolding Mat)

가변크기\_2차례의 낭독 워크숍을 통해 제작된 글과 돗자리\_20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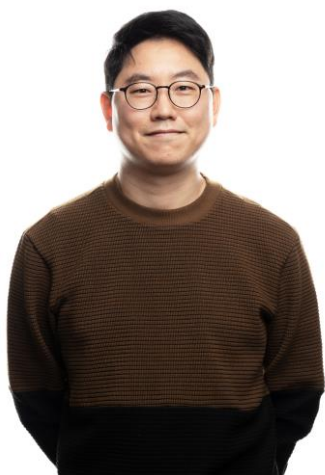


## dotzaripeolchigi(Unfolding Mat)

가변크기\_2차례의 낭독 워크숍을 통해 제작된 글과 dotzari\_2024

# 고정원

Go Jungwon



---

고정원 작가는 주변에서 무분별하게 사용되고 버려지는 것에 대해 질문을 던지며, 연민과 쓸모에 대한 연장, 혹은 쓸모에 대한 발견을 다양한 설치작업으로 풀어어나가고 있다. 대학 시절 부터 간판업을 하시는 아버지의 영향을 받아 작품의 도구로서 수집된 간판들이 주매체로 사용하고 있으며, 오래된 사물을 통해 새로운 이야기를 꺼내는 것을 시도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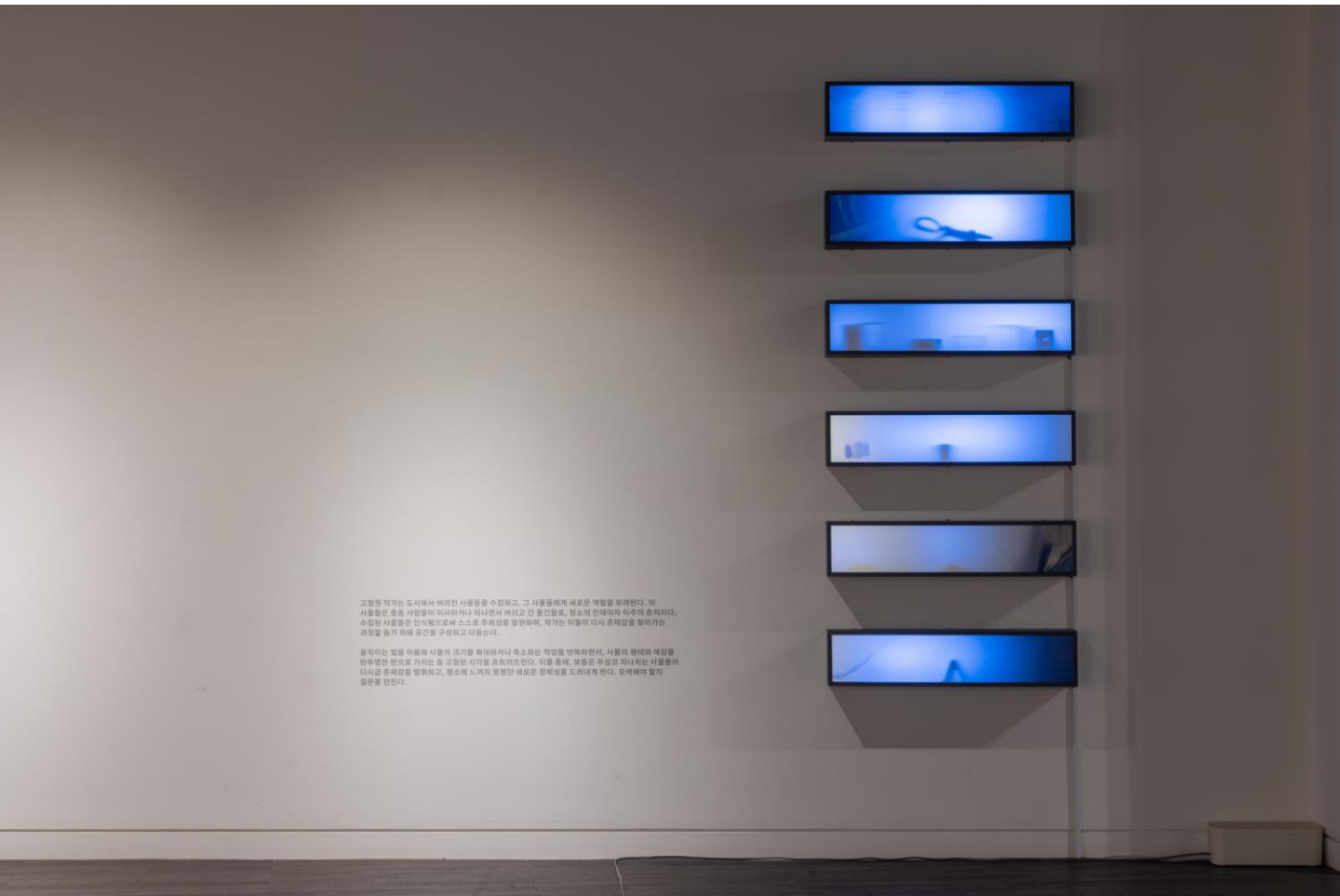
[jungwongo@naver.com](mailto:jungwongo@naver.com)

# 고정원

Go Jungwon

작가는 도시에서 버려진 사물들을 수집하고, 새로운 역할을 부여한다. 수집된 사물은 인식됨으로서 스스로 주체성을 발현하는데, 작가는 발현되는 주체성이 더욱 확장될 수 있도록 공간을 구성하고 다듬는다.

움직이는 빛을 이용해 사물의 확대와 축소를 반복시키고, 그 형태와 색감을 반투명한 판으로 가리게 된다. 사물을 바라보는 고정된 시각을 가리고 계속해서 변화하는 음영을 통해 평소에 느끼지 못하는 새로운 존재감을 발현하고자 한다.



고정된 작가는 도시에서 버려진 사물들을 수집하고, 그 사물들끼리 새로운 역할을 부여한다. 이 사물들의 종종 사생활이 드러나거나 드러나지 않고 간 물건을, 장소의 존재와 위주의 흔적이다. 수집된 사물들은 인식함으로써 스스로 주체성을 발현하며, 작가는 이들이 다시 존재감을 찾아가는 과정을 돕기 위해 공간을 구성하고 다룬다.

움직이는 빛을 이용해 사물의 크기를 확대하거나 축소하는 작업을 반복하면서, 사물의 형태와 색깔을 반복적인 원으로 가리는 등 고정된 시간을 흐트러뜨린다. 이를 통해, 보통은 무심코 지나치는 사물들이 새로운 주체성을 발휘하고, 장소에 보이지 못했던 새로운 존재감을 드러내게 한다. 오래해와 닿지 않음을 만든다.

## 무제(Untitled)

가변설치\_반투명 아키라이트, 스노우펠 LED조명, 알루미늄 H몰드, 수집된 오브제\_2024



# 이선구

LEE, SUN GU



---

이선구는 건축 공간에서 나타나는 억압된 감정에 관심이 있으며, 이것을 가시화하는 작업을 선보인다. 복제되고 가득 찬 건축 구조에 질문을 던지며, 도시 공간 연구를 통해 억압에 갇힌 삶을 은유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이번 전시에서는 실재와 가상공간의 관계를 오브제와 사진으로 표현한다. 이를 통해 나타나는 시각의 불완전성은 건축 공간의 본래모습을 볼 수 없음을 보여준다.

elecking20@gmail.com

sungulee.co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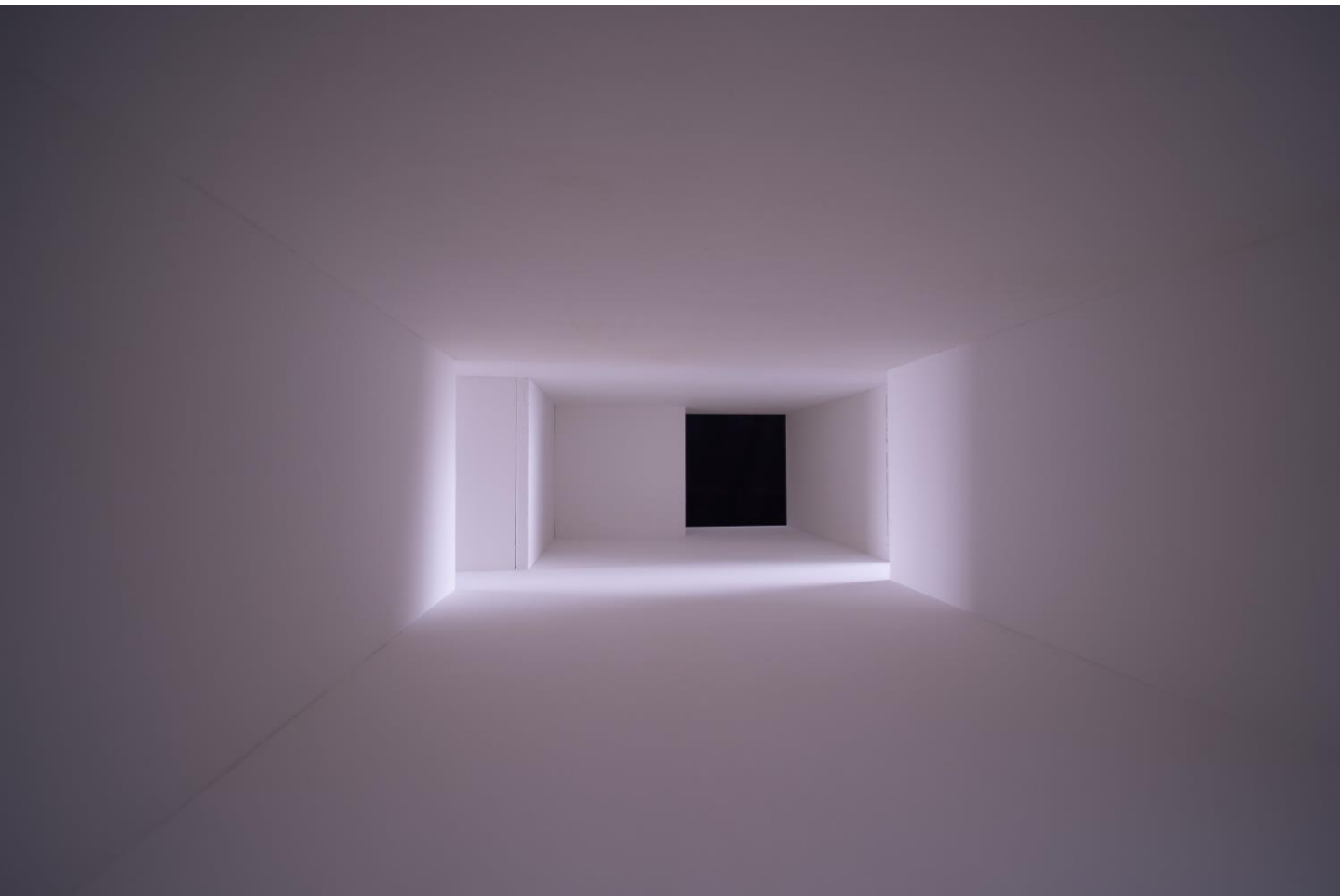
# 이선구

LEE, SUN GU

<White Floor>은 이전 작업인 <White Box>의 연작이다. 작가는 실제 공간을 미니어처로 제작한 뒤 이것을 다시 촬영한다. 그리고 미니어처와 사진 이미지를 함께 전시함으로써 건축공간을 바라보는 시각 체계에 문제를 제기한다. 이 같은 과정은 인공적 공간에 숨어있는 억압적 성격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다.

이번 전시작품인 <White Floor>는 청주지역의 아파트를 모델로 공간을 제작한 뒤 이것을 촬영한다. 촬영된 단편적인 공간 이미지는 디지털 편집을 통해 복수의 공간구조물로 편집되며, 전시장에서는 미니어처와 사진이 함께 전시된다.

일상의 건축 공간에서 작가는 억압의 감정을 체험하게 된다. 이것으로 인공적 공간 속에서 숨어있는 억압을 가시화하는데, 현대 건축 방식에서 나타나는 대량, 공장화를 <White Floor>의 작업 과정(단일 공간 촬영, 복사하기)을 통해 가시화한다.



## 흰 층(White Floor)

가변설치\_Archival Pigment Print\_2024



## 흰 상자(White Box)

80x150x50cm\_wood\_2024

# 문창환

Moon Changhwan

---

문창환은 단순히 환경적 문제를 다루는 것에 그치지 않고, 문화적 다양성과 사회적 정의를 중요한 요소로 삼아, 보다 깊이 있는 비전을 제시하고자 한다. 솔라펄크가 제안하는 이상은 현재의 도전과 가능성을 반영하며, 환경 보호와 인류 복지의 조화를 추구한다. 다양한 매체를 통해 이러한 비전을 시각적으로 형상화하고, 예술적 접근을 통해 인간과 자연, 기술 간의 관계를 새롭게 성찰하고자 한다.

[decoraa@naver.com](mailto:decoraa@naver.com)

<https://changhwanmoon.myportfolio.com/moon-chang-hwan>

아파트 단지 내에서 농작물 건조 행위가 금지된다는 포스터를 보고 시작되었다. 주택가에서는 자연스럽게 이루어졌던 농작물 건조 행위가 아파트라는 공동 주거 환경에서 갈등의 원인이 되는 것을 발견하며,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세대 간의 생활 방식 차이에서 비롯된 갈등을 시각적으로 풀어내고자 했다. 이 작품은 세대 간의 충돌과 그 속에서 조화와 이해가 어떻게 형성될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을 던진다.

주택가에서는 집 앞마당에서 농작물을 말리는 것이 흔한 풍경이었지만, 아파트로 이주하면서 공용 공간 사용이 제한되며 이러한 행위가 금지된다. 이는 단순한 규제의 문제가 아니라, 세대 간 생활 방식의 차이와 그로 인한 갈등을 보여주는 사례였다. 이 상황을 통해 공동체 내에서 발생하는 긴장과 충돌, 그리고 변화에 대한 고민을 깊이 하게 되었다.

특히, 젊은 세대들이 거주하는 아파트에서 농작물 건조 행위는 미관상 보기 좋지 않으며 위생적으로도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고 여겨졌고, 더 나아가 집값 하락에 대한 우려까지 겹쳐 민원이 시작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이처럼 농작물 건조 행위는 단순한 일상적인 행위에서 벗어나, 세대 간의 가치관 차이와 현실적인 문제들로 인해 충돌의 원인이 되었다.

더불어, 주택가에서 자연스럽게 행해졌던 농작물 건조 행위는 노년층에게 있어 단순한 생활 방식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 아파트로 이주한 노년층은 자신들이 일생 동안 살아온 방식과 연결된 공간을 잃고, 그로 인해 깊은 상실감을 경험하게 된다. 이 작품은 이러한 노년층의 상실감과 현대 사회에서 세대 간 생활 방식이 어떻게 갈등을 일으키는지를 시각적으로 탐구한다.

작품 안에 배치된 고추, 마늘, 감과 같은 농작물들은 과거의 생활 방식을 상징하고, 이 작품은 단순히 갈등을 표현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는다. 예술이 갈등 속에서 어떻게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는지 보여주고자 했다. 이 건조실은 물리적 공간을 넘어 세대 간 소통의 장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 서로 다른 생활 방식이 충돌하는 공간 속에서, 이 작품은 서로를 이해하고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가능성을 상징한다. 과거와 현재, 전통과 현대가 만나는 지점에서 새로운 공동체 의식을 탐구하는 시도이다.



# 남겨진 햇살과 바람에 실린 그늘 (The Leftover Sunlight and Shade Carried by the Wind)

가변설치\_혼합재료, 영상, 사운드\_2024



# 홍덕은

*Hong Deokeun*



---

홍덕은은 공간과 식물을 매개로 문화적 현상들을 탐구하고 소통하는 도시조경 연구자이자 문화기획자이다. 도시에서 공존과 확장을 키워드로 다양한 워크숍과 기획 활동을 전개한다. 2021년부터 도시의 장소성을 기반으로 도시 식물을 리서치하는 <도시소록> 프로젝트를 기획하여 도시의 비밀정원과 청주시 공원의 나무를 기록하고 아카이브하는 활동을 하고 있다.

deokeunhong@gmail.com

@\_monopot

부제 : 도시를 걷는 법

식물은 장소의 정체성을 부여한다.

식물을 따라 걸으며, 도시의 일상적 풍경을 채집한 사진과 글을 나열한다.

## 1. 재야생화(Rewilding)

사람이 다듬고 만들었던 인위적 경관은 점차 사라지고, 자연스럽게 풀씨가 날아와 앉아 자리를 잡는다. 사람들은 무성하게 자란 덩굴, 혹은 제 멋대로 자라난 식물들이 다시 지어낸 공간을 보며, 도시 경관을 해친다고 한다.

## 2. 정원(Garden City)

도시를 걷다 보면, 담벽을 따라 줄지어 놓인 화분들을 만난다. 대부분 우리가 식재료로 활용하는 먹거리 또는 계절에 따라 피고 지는 꽃들이 심겨 있으며, 가변적인 형태인 화분, 고무대야, 항아리로 구성된다.

## 3. 나무(Arbor)

목마른 자가 샘을 판다. 기록적 폭염일수를 갱신한 올해 여름, 그늘을 찾아 헤맸다.

식물을 기록하는 행위는 자연스럽게 도시를 읽고, 기억하는 방법이 되었다. 낯설기도 하고 익숙하기도 한 공존의 장면을 채집한다. 관심과 사랑을 표현하는 의식적인 행위이기도 하다.

사람에 의해 도시에 터를 잡은 관상수와 가로수, 땅과 흙이 없는 공간에서도 나름의 방법으로 가꾸는 삶의 터전, 새롭게 지어지는 도시의 녹색 공간, 작은 틈새를 점거하며 살아가는 식물의 자생력.

아이러니로 얽힌 도시 환경과 관계망 속에서 우리는 어떤 공존을 꾀해야 할까?

## 도시에서 나무로 살아남기

도시에서 살아남기란 쉽지 않다. 나무도 마찬가지이다. 편리주의와 자본론에 의해 합리성을 따져 주장해온 일들이 도시의 나무들이 고스란히 감당해야하는 일이라기엔 너무나 혹독하다. 특히 오랫동안 장수해 온 나무일수록 더욱 위태하다. 도시의 아주 멋진 상징적 경관을 이루었다고 해도, 마을의 인상을 좌우하는 나무가 되었더라도 마주해야 하는 현실은 크게 다르지 않다. 인간의 기준에 맞춰 참 사랑받는 나무되기란 무척이나 까다롭고 어렵다. 그럼에도 나무들은 노력한다. 주어진 환경에 맞추어 살아남기 위해 보도블럭 밑에서 각종 파이프와 케이블을 피해 필사적으로 뿌리내리고, 전선 줄에 맞닿은 가지 끝에서 생존을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다.

### \*도시에서 살아남으려면 꿀팁

- (1) 냄새나지 않기
- (2) 씨앗, 열매, 낙엽 떨어뜨리지 않기 (쓰레기 만들지 않기)
- (3) 처음 모습 그대로 자라지 않기

## 도시소록(Urban Green spacd Archives)

가변크기\_Archival Pigment Print(2018년부터 현재까지 기록한 사진과 글)\_2024



## 도시소록(Urban Green spacd Archives)

가변크기\_Archival Pigment Print(2018년부터 현재까지 기록한 사진과 글)\_2024





## 도시소록(Urban Green space Archives)

가변크기\_Archival Pigment Print(2018년부터 현재까지 기록한 사진과 글)\_2024

## 진짜 정원

주민들의 삶의 이야기 덧대어진 비정형의 정원은 꾸밈없는 우리 삶의 터전이자 살아있는 도시의 문화가 된다. 우리가 살고 있는 도시 구석구석에는 동네 주민들의 손에 아름답게 가꾸어지는 살아있는 진짜 정원이 있다.

정원에는 고유의 개성이 있고 아름다움이 있다. 전문적으로 배운 적 없다지만 수년간의 실패와 성공, 시도와 연구는 저마다의 노하우가 되고, 그 열정만큼은 어느 전문가 못지않다. 그들이 가꾼 화분은 한 평의 정원이 되고, 정원은 결국 도시의 일부로 바라볼 수 있다. 주먹구구의 정원이라며 단지 좋아서 하는 취미를 넘어 그들의 실천적 삶의 태도와 가꿈의 미학을 엿볼 수 있다.

무엇이든 가꾸면 좋아진다. 가꾼다는 것은 작은 관심에서 출발한다. 마을에 정원을 가꾸는 집은 몇 가구나 되는지, 주로 많이 가꾸는 식물 종은 무엇인지, 정원을 가꾸는 데 어떤 것들이 필요한지 찾아 나서 보자. 상상 속의 정원이 아닌 실제 우리 삶의 정서와 맞닿아 있는 정원에 찾아가 말을 걸어 보고, 더 많은 이들이 공감할 수 있게 하자. 흔히 말하는 트렌디하고 세련된 정원도 아니고, 지극히도 사적인 정원이지만 연결을 통해 동네와 도시의 진화를 모색할 수 있지 않을까.

## 도시소록(Urban Green spacd Archives)

가변크기\_Archival Pigment Print(2018년부터 현재까지 기록한 사진과 글)\_2024



03

---

*Critique.*

03

충북문화재단 충북갤러리 '장소상실(Loss of Locus)' 전 비평

홍경한

미술평론가

---

장소상실(Loss of Locus),  
문화·사회적 연속성의 붕괴 그리고  
‘뿌리 뽑힘(uprooted)’에 관한 아홉 개의 서사

### 1.

장소는 개인의 경험에 따라 특별한 의미를 지닌다. 예를 들어 여행지에서 느낀 감동이나 그 장소에서만 겪을 수 있었던 경험은 그곳을 단순한 위치 이상의 곳으로 만들게 한다. 이는 장소가 개인의 경험(상황을 직접 겪거나 참여함으로써 얻게 되는 개인적, 감각적, 혹은 인지적 학습과 이해의 총체)이 다채롭게 기록될 수도 있다는 것을 뜻한다.

장소는 특정 사건이나 기억이 저장된 공간이기도 하다. 과거의 어떤 곳에 대한 향수 및 특별한 장소에서 느끼는 안정감 또는 불안은, 장소가 물리적인 것 이상으로 감정적, 심리적 요소를 지닌다는 것을 알 수 있도록 한다. 이 밖에도 장소는 사람들 간의 상호작용이 이루어지는 장이자, 인간관계와 교류를 위한 무대가 되며, 때론 유무형의 사회적 무게를 갖기도 한다. 더불어 장소는 정체성을 부여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뿐더러, 존재가 드러나는 공간으로도 설정된다. 그리고 이와 같은 분석을 옹호하는 철학적 관점과 예술적 해석은 드물지 않다.

일례로 프랑스의 철학자 가스통 바슐라르(Gaston Bachelard)에게 장소는 인간의 내면과 상상의 세계이다. 그는 장소야말로 인간의 감정과 사물, 상황, 개념 등을 머릿속에서 그려내는 정신적 활동에 있어 매우 중요하게 역할 한다고 믿었다. 사람들에게 정서적 반응을 불러일으키고, 공간과 결합된 기억과 감정의 층을 형성하는 공간 이상의 가치로 승화될 수 있다는 것이다.

앞서 잠시 언급했듯 장소를 ‘존재의 드러남’으로 보는 경우도 있다. 독일의 마르틴 하이데거(Martin Heidegger)는 ‘거주(居住)’ 개념을 통해 인간과 장소의 상관성을 설명했다. 장소가 사람들에게 함의를 부여하고, 인간이 장소와 함께 존재한다는 뜻이다. 그의 강연 정리집 《건축함, 거주함, 사유함(Bauen, Wohnen, Denken)》(1951)을 보면 장소란 인간의 삶의 중심이 되는 근원적인 자리임을 알 수 있다.

캐나다의 지리학자인 에드워드 렐프(Edward Relph)는 장소를 정서적 연결로 본다. 그는 ‘장소감(Sense of Place)’이라는 개념 아래 인간이 특정 장소에 대해 가지는 감정(자극이나 상황에 대한 개인의 내적 반응)을 강조했는데, 저서 《장소와 장소 상실(Place and Placelessness)》(1984)에는 현대 사회가 표준화되고 획일화되면서 장소의 고유성이 상실되는 문제가 있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그는 사람과 장소 사이에 깊은 교감이 형성될 때 비로소 그 장소는 특별한 정체성을 가질 수 있다고 했다.

이처럼 장소는 물리적 공간 이상의 인간 정체성과 기억, 감정, 역사, 그리고 사람들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가치를 부여받거나, 개인적 경험과 감각을 담아내는 그릇으로 기능한다. 문화적 맥락을 포함해 매우 복잡한 개념을 포박하듯, 사람마다 다양한 시각으로 접근하고 풀이한다. 물론 여기엔 특정 장소를 바라보는 예술가 저마다의 주관까지 투영되어 있다.

### 2.

예술가들은 곧잘 장소에 대한 역사적, 문화적 맥락(상황, 사건, 언어 또는 개념이 놓인 환경이나 배경)을 반영한 작품을 통해 장소(공간)<sup>1)</sup>을 설명하고, 경험으로서의 장소에 대한 감각을 직·간접적으로 펼쳐낸다. 어떤 미술가들은 개인적 또는 집단적 기억을 표현하기 위해 특정 장소를 소환하기도 하며<sup>2)</sup>, 개중에는 장소(공간)와 작품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관계(Site-Specific Art)를 중시하는 작업들도 선보인다.<sup>3)</sup>

충북문화재단 충북갤러리(인사아트센터 2층)에서 진행되는 ‘장소상실(Loss of Locus)’ 전(展)(2024.10.17.~11.4.)도 그 중 하나다. 이선희가 기획한 이 전시는 장소에 대한 여러 레이어(layer)를 보여주며, ‘장소’와 ‘상실’을 축으로 그것이 어떻게 시각화 될 수 있는지를 다양한 조형으로 직조한다.(기획자의 말에 의하면 “위계적으로 분류되지 않은 채 위치와 환경, 시간, 개인적 경험, 가정(가족), 공동체와 같은 것들이 겹치고, 뒤섞여서 다양하게 해석된다.”)<sup>4)</sup>

장소를 주관적인 경험(사람이 살아가며 직접 겪고 느끼며 얻게 되는 지식, 감정, 통찰의 축적)을 담고 있는 곳이라 정의한 기획자는 일상생활 속 발생하는 현상들을 경험하고, 분석하며, 의미를 부여한 공간으로 일컬으며 장소와 관련해 다음과 같이 밝힌다.

- 1) 참고로 장소는 의미를 부여함으로써 인식되는 지점이라면, 공간은 그 의미 이전의 영역을 말하지만 때론 이 둘 사이의 개념은 혼재된다.
- 2) 사진작가 마이클 웨슬리(Michael Wesely)는 시간을 추적하는 긴 노출 사진을 통해 장소의 변화를 기록하고, 그 속에서 시간의 흐름과 기억을 담아내는 작업을 선보인다.
- 3) 미국의 예술가 로버트 스미스슨(Robert Smithson)의 대지미술 작품 <스파이럴 제티(Spiral Jetty)>는 미국 유타주에 설치된 대규모 나선형 조형물로, 작품 자체가 그 장소의 지형적, 환경적 특성을 반영하고 있다. 스미스슨은 장소를 단순한 배경으로 보지 않고, 장소와 작품이 밀접하게 결합된 미학으로 해석한다.
- 4) 기획자 이선희.

“어떠한 장소가 기억에서만 존재하는 곳이 되었을 때 우리는 끊임없는 상실을 경험하게 된다. 동질화 된 공간을 반복적으로 주조해내는 도시는 장소가 가진 차이를 빠르게 말살시키며 공간이 우리의 삶과 얽히며 친밀한 장소로 변화되는 경험을 단절시킨다. 또한 자본의 회로로 기능하는 도시는 거주에 대한 우리의 인식 역시 지대(地代)의 상승과 맞물리도록 변모시켰다. 이제 집은 더 이상 우리가 실존적으로 뿌리내리는 장소가 아니라 투자를 위한 대상으로 바뀌었다. 이것은 우리에게 지속적인 ‘뿌리 뽑힘(uprooted)’의 상태를 경험하게 한다.”

여기서 눈길을 끄는 것은 ‘뿌리 뽑힘’이라는 표현이다. 뿌리가 뽑힌다는 것은 원래 속한 장소에서 분리됨을 의미하며, 비유적으로는 익숙하고 안전했던 환경에서 벗어나거나, 떠나야만 하는 상황을 가리킨다. 이를 달리 보면 정체성 일부가 손상되는 것, 혼란을 초래하는 경험과 밀접하다. 공동체 내에서의 소속감의 박탈도 그 일부다. 또한 ‘뿌리 뽑힘’이란 장소와 얽힌 기존의 기억이 흐릿해지거나 소멸됨, 시멸(漸滅)과도 무관하지 않다.

물론 ‘뿌리 뽑힘’은 기억의 재구성과 연관이 있다. 새로운 장소로의 이동, 그에 따른 낯선 환경에서의 이방성까지 수반한다. 무채색의 도시, 이민, 전쟁, 재해 등의 이유로 집과 장소를 잃는, 거대한 구조물이 주변 환경과 융합되지 못하고 부조화 속에서 있는 모든 현상이 ‘뿌리 뽑힘’에 관한 반응의 연장이다. 이 외에도 ‘뿌리 뽑힘’은 정주성이 아닌, 끊임없이 이동하는 ‘부유하는 장소성’을 말하며, 이는 유동적인 동시대인들의 삶과도 관계된다.

이처럼 여러 결을 지닌 ‘뿌리 뽑힘’을 키워드로 한 이번 전시는 이선희의 기획으로 모두 9명의 작가가<sup>5)</sup> 참여한다. 기획 의도는 다양한 영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작가들의 시각을 통해 “우리가 일상적으로 경험하고 있는 ‘뿌리 뽑힘’의 상태가 주는 상실감.”<sup>6)</sup>을 적시하고, 장소에 얽힌 역사와 문화적 서사를 탐구하기 위해서다.

5) 고정원, 김기성, 이재복, 금벌레, 윤다혜, 금벌레, 이선구, 김라연, 홍덕은.

6) 이선희.

### 3.

기획의도에 맞게 작가들은 각자의 시각언어로 장소를 재해석하고 그것의 의미를 심화한 작업들을 선보이며 관람객들에게 새로운 감각적 충위를 선사한다. 나아가 작가들의 작업 역시 ‘뿌리 뽑힘’을 키워드로 관람객이 장소를 일차원적 공간이 아닌, 역사와 기억의 복합적 층위로 전개하며 관람자들에게 장소가 지리적, 문화·사회적, 역사적 상호작용임을 이해할 수 있도록 풀어낸다.

전시의 기본구조는 ▶공공데이터와 사진, 영상 기록을 통해 잃어버린 공간을 박제하기 ▶심성의 지도를 그리며 시공간을 연결시키기 ▶대지의 순환과 물질적 생동성을 회복하기 ▶뿌리내림과 일어서기의 과정에 입각해있다. 역사와 기억이 얹힌 장소에 대한 작가들의 개인적 경험과 관심, 그리고 시간적, 문화적, 개인적 맥락이 교차하는 장면들을 각자의 조형방식으로 소개한다. 그리고 모든 소실 점은 장소와 상실, ‘뿌리 뽑힘’으로 향한다.

일례로 작가 김기성과 이재복은 가족의 개인사를 바탕으로 한 과수원(30여년간 부친이 운영했던 과수원이 다른 무엇으로 대체되는 현실)의 운명을 그리거나, 이방인의 시선에서 도시개발과 기후위기 앞에 놓인 채 변화하는 풍경들(도시의 재개발 과정이 도시 환경과 경관에 미치는 영향, 김기성), 경제논리에 의해 주변화 되는 동식물, 그리고 도시 환경 속 사라지는 공간(이재복) 등을 싱글채널 비디오와 사진으로 되짚는다. 매체는 다르지만 장소에 깃든 사람들의 기억과 이야기라는 점은 같다. 터전의 항구성을 거역한 이동, 동의 없는 이식이라는 측면에서만 놓고 보면 ‘뿌리 뽑힘’과도 자연스럽게 연결된다.

# 홍경한

미술평론가

작가 김라연과 윤다혜는 개인적 장소 경험을 기억하고 기록한다. “산책을 하며 만나는 길과 사물, 그리고 자신의 생각들을 파편화하고 모으며 화면을 구성하는 회화 작업”(길을 걸으며 발견하는 풍경, 사물을 통해 작가 개인의 내면세계와 외부 현실을 어떻게 연결할 수 있는지를 탐구하는 김라연)으로 장소의 일상성을 담담히 다루고, 봄나물을 뜯으려 자주 방문했던 산, 그 산에 저장된 가족들과의 추억이 있는 장소를 기록함과 동시에 개발로 잃어버린 상실을 도예작품과 항공사진으로 보여준다.(윤다혜)<sup>7)</sup> 이들에게 장소상실은 감정적 공백을 만들어내는 자리다. 장소의 고유성과 유한성 및 그곳을 둘러싼 시간의 흐름이 개발이라는 이름 아래 어떻게 무화되는지에 대한 미적 숙고를 엿볼 수 있다.

7) 자료에 따르면 작가는 산이 개발되기 전 모습을 국토지리정보원에서 제공하는 수치 자료를 이용하여 3D로 재현한 후 폴리곤 메쉬로 전환하여 그릇 표면에 새겨 넣었다. 그에게 장소를 담는 그릇 작업은 지금은 사라진 장소를 재현한 기록물이다.

# 홍경한

## 미술평론가

작가 고정원과 이선구는 버려짐에 대해 질문한다. 고정원은 간판업을 하는 아버지의 영향을 받아 작품의 도구로서 수집된 간판들을 사용해 잊혀가는 것과 재현되는 것의 간극을 조명한다. 작가에게 간판은 한 자리에서 나뭇잎의 생명을 담고 있는 개체로 존재한다. 그는 이 간판으로 소명을 다한 오브제에 시간 연장을 부여하고 개입에 의한 새로운 관계성을 설정한다.

이선구는 실제 공간을 미니어처로 제작한 뒤 그것을 다시 촬영하는 방식으로 건축공간에 관한 시각체계의 문제를 제기한다. 특히 그는 현대 사회에서 경험하는 공간의 변화에 주목하며, 장소의 성격과 개인의 정체성이 어떻게 상실되고 있는지를 보여준다.<sup>8)</sup>

흥미로운 지점은 두 작가의 작업에선 시간의 중첩과 흔적의 미학을 읽을 수 있다는 것이다. 사물존재의 불완전성, 재현의 불가능성에서 오는 미적 감각, 결핍을 채우려는 잉여적 시도 등도 마찬가지다.

8) 사업계획서에 적시된 “도시인들의 안식처인 집이 점차 물개성의 공간으로, ‘뿌리내림’이 불가능한 구조가 되어가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 아파트 공간의 구조 속에서 개인의 뿌리내림과 회복의 시간을 고민한다.”는 문장도 같은 선상에 있다.

홍경한

미술평론가

기후 변화로 위기에 처한 지구의 지속 가능성을 모색해온 작가 문창환은 이번 전시에 세대 간의 충돌과 그 속에서 조화와 이해가 어떻게 형성될 수 있는지에 대해 자문하는 작업을 선보인다. ‘도시에서 나무로 살아남기’라는 인상적 구절(리서치 프로젝트 도시소록, 2021, 기획 이선희)이 떠오르는 홍덕은은 “반복적으로 붕괴되고 새로 건설되는 도시의 공간에서 자연을 훼손하고 파헤쳐지는 과정과 인간이 자연을 통제하는 설정의 오류를 전하고, 인간과 자연이 서로 협력하고 조화를 이루는 경지로써 도시 속, 함께 살아가는 생명”에 대해 이야기한다.

이들은 도시에서 재배된 농작물들의 상징적 의미와 인식 및 삶의 관계망(문창환), 도시 속 발견된 이미지(화분, 가로수 등, 홍덕은)를 각자의 문법 아래 읽고 해석함으로써 함께 공존하며 공생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한다.<sup>9)</sup>

9) 이들은 공존공생을 위한 여러 갈등을 오히려 소통과 이해를 위한 기회로 바라보며 경험의 공유와 상호학습의 필요성, 공통 가치를 통한 연대감, 의사소통 방식의 개선, 가치를 인정하고 수용하는 태도의 필요성을 말한다.

홍경한

미술평론가

마지막으로 도자와 인류학을 전공한 작가 금벌레는 성인과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두 번의 워크숍을 맡는다. 장소에 얹힌 개인적인 기억들에 관해 글을 적고 함께 읽으며 이야기를 나누는 과정 자체를 예술로 삼는다. 워크숍은 ‘장소 상실에 대한 개인적인 기억에 대해 이야기 나누기’와 ‘자신이 버리고 싶은 장소와 애착하는 장소에 대해 이야기 나누기’로 진행되며, 장소에 얹힌 개인적인 기억에 관해 글을 적고 함께 읽는 방식 외에도 낭독극이라는 연극적 매체를 활용한 프로그램도 마련한다. 교사이자 아마추어 연극 활동가인 차성욱과 협업한다. 시각 너머 공감 가능한 실천성에 방점을 둔 프로그램이다.

#### 4.

참여 작가들의 작업은 대체로 충북(청주, 보은 등)을 배경으로 한다. 하지만 기획자의 말처럼 “장소상실과 ‘뿌리 뽑힘’은 우리 지역(특정지역)만의 이야기가 아니며, 도시 곳곳에서 비슷한 주기로 일어나고 있는 동시대 현상이다.” 지금도 도시를 포함해 인간이 살아가는 곳에선 장소상실이 이어지고 있다. 그만큼 누군가에게 또는 우리 모두에게 기억의 현재화는 탈각된 채 감각적, 정서적 기제로서의 장소만 남곤 한다.

이번 전시는 장소를 기억이 과거에 머물지 않고 현재화될 때 새로운 의미를 생성한다고 보고 있다. 이는 시간의 연속성 속에서 장소에 관해 환기하고 현재를 텃밭으로 장소성을 되물으며, 기억과 감정이 삶 안에서 어떻게 재해석되고 비상실적 조건을 위해선 어떤 방식으로 접근해야 하며 동시대 무수한 변화 앞에서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올바른 연대란 과연 무엇인지를 되묻는다.

물론 이번 전시는 관람자들에게 시각만족에 머무는 수동적 과정이 아니라, 행동의 동기를 부여하는 적극적 과정을 담고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모르긴 해도 관람자는 해당 전시를 통해 장소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하게 되고 특정 장소와 얽힌 기억을 소환하며, 사회적 문제나 환경적 문제를 현재화하면서 그것을 해결하기 위한 일상적 관심을 모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2024.10.14.



# 04

---

## *Installation View.*

전시 전경

장소상실 (Loss of Locus)

2024 충북갤러리 하반기 기획자 공모 전시

# 장소 상실

2024.10.17 Thur  
11.04 Mon

기획  
이선희

참여작가

고정원 김기성 김라연 금별레 문창환  
윤다혜 이선구 이재복 홍덕은

남독극 협업  
차성욱

충북문화재단 충청북도 문화재단

## 이선희 (장소상실 기획)



도시의 성장, 부흥, 쇠퇴 과정은 흡사 사람이 태어나 자라고, 전성기를 누리다 나이 들을 경험하는 것처럼 생명력을 지니고 있다. 이러한 도시는 그곳에서 거주하며 살아온 사람들의 치열한 삶과 문화가 축적된 초상의 단면이며, 더 나은 공간이 되기 위한 성장의 시간을 품고 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현대화가 거듭될수록 도시는 삶의 다양성을 잃고, 추상공간으로 변모하고 있다.

어떠한 장소가 기억에서만 존재하게 될 때, 우리는 끊임없는 상실을 경험하게 된다. 동질화 된 공간을 반복적으로 주조해내는 도시는 장소가 가진 차이를 빠르게 말살 시키며, 공간이 우리의 삶과 얽히며 친밀한 장소로 변화되는 경험을 단절시킨다. 또한 자본의 회로로 기능하는 도시는 거주에 대한 우리의 인식 역시 시대(時代)의 상승과 맞물리도록 변모시켰다. 이제 집은 더 이상 우리가 실존적으로 뿌리내리는 장소가 아니라 투자를 위한 대상으로 바뀌었다. 이는 우리에게 지속적인 뿌리뽑힘(uprooted)의 상태를 경험하게 한다.

이번 전시는 거주 경험을 바탕으로 우리의 일상 속 뿌리뽑힘 상태가 주는 상실감과 애도의 감정을 예술가들의 다양한 태도와 실천을 통해 선보인다.

1. 재개발과 도시재생 등의 이유로 사라진-질 공간을 다큐멘터리적 시선으로 기록 (이재복, 김기성)하고,
  2. 개인적 장소경험을 박제, 기억하기 위해 재현(김라연, 윤다혜)하며,
  3. 발화를 통해 상상의 지도를 이미지화(금벌레)하는 과정으로 연결된다.
- 또한
4. 추상공간 속에서 주체성 회복을 위한 재현적 실천(고정원, 이선구)과
  5. 더 나아가 짓고, 거주하며 주변환경과 관계를 맺고 살아가기 위한 과제(문창환, 홍덕은)로 구성된다.

본 전시를 통해 관람자 개인의 상상 속에 머무르던 장소에 관한 기억을 고집어내고, 도시와 함께 호흡하며 끊임없이 현재화되는 장소 실천으로 이어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이는 우리가 지금 어디에 발을 디디며 살고, 무엇을 향해 걸어가고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뿌리내릴 할 것인지 다가올 도시를 위한 안내자가 될 것이다.



2024 충북갤러리 하반기 기획전 전시

# 장소 상실

2024.10.17 Thur  
11.04 Mon

기획  
이선희

협조장자  
고정원

|     |     |     |     |
|-----|-----|-----|-----|
| 김기성 | 김민준 | 김영민 | 문정환 |
| 윤다혜 | 이선구 | 이재혁 | 홍익은 |

남북국 협업  
최성국

주최: 충청남도 문화재단  
후원: 충청남도 문화재단



이 작품은 2024년 10월 17일부터 11월 4일까지 충북갤러리에서 전시된다. 이 작품은 2024년 10월 17일부터 11월 4일까지 충북갤러리에서 전시된다. 이 작품은 2024년 10월 17일부터 11월 4일까지 충북갤러리에서 전시된다.



이 작품은 2024년 10월 17일부터 11월 4일까지 충북갤러리에서 전시된다. 이 작품은 2024년 10월 17일부터 11월 4일까지 충북갤러리에서 전시된다. 이 작품은 2024년 10월 17일부터 11월 4일까지 충북갤러리에서 전시된다.













장소 상실

Loss of Locus

|   |   |   |   |   |   |   |   |
|---|---|---|---|---|---|---|---|
| 초 |   | 바 |   | 개 |   | 러 | 리 |
|   | ㅏ | ㅓ | ㅕ |   | ㄹ |   | ㅣ |
|   | ㅇ |   | ㄱ |   | ㄹ |   |   |

서울특별시 종로구 인사동길 41-1 인사아트센터 2층